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제9대 안수집사 40명, 제37대 권사 67명 피택

지난 주일(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

지난 주일(3월 19일) IV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어 실시한 제9대 안수집사, 제37대 권사투표에서 안수집사 40명, 권사 67명이 피택되었다.

공동의회에서 선출인원의 정수를 놓고 투표한 후 안수집사는 유효투표수의 삼분의 이를, 권사는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을 피택자로 정하기로 했다.

저녁 찬양예배 후 임시 당회를 열어 개표한 결과 안수집사 후보자중 유효표의 2/3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40명, 권사 후보자 중 유효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67명이었다.

이날 총 투표자수는 2,819표, 이중 기권이 6표, 유효투표자수가 2,813표로 삼분의 이선은 1,880표. 이번에 피택된 안수집사, 권사들은 4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와 면접을 거친 후 10월 17일 장립식 및 취임식을 갖게 된다. 피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순서는 연령순이다).

· 안수집사

허명호 오동환 김형철 배춘식 조종환
박병택 진학래 손기현 김영달 유성남
엄균영 조홍진 양승길 정인선 박승길
정청길 박종규 박창식 이부성 신상수
유상태 정재모 김달현 정래부 이달옥
고제승 차기풍 김창국 허 오 이인광
김영록 정래명 함철주 장충균 전은배
김자철 김중선 박용기 안희정 이승계

· 권사

최선옥 박태순 이원화 김현옥 박영여
김경자 김효정 김봉덕 윤정희 최정심
박점순 구인숙 조분자 설복연 장옥순
안태숙 이정순 강정일 김연옥 김정희

민병란 이희자 안정선 은필례 안정자
장명숙 강영자 유재춘 양명자 유성자
김경애 김숙자 연화숙 손순자 박부미
조영자 이명자 이학자 임용재 변옥희
이소현 최현숙 최 규 손숙자 문경희
김미자 왕진숙 최길자 한숙원 최하자
여신자 안숙자 강석란 김인단 조옥환
최태옥 박춘옥 안숙자 조자순 최영득
강동화 조향순 김순자 마정옥 김명주
김영아 방소애

▶ 지난 주일 실시한 안수집사·권사 투표는 온 교회의 관심 속에서 실시됐다. 2,81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했다. 안수집사는 유효투표수의 삼분의 이, 권사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피택이 되는 이번 투표에서 안수집사 40명, 권사 67명을 뽑았다.

군목후보생 수련회

3월 28일(화), 국제회의실에서

교회는 사단법인 군복음화 후원회(이사장 박선회)가 군목후보생들에게 군입대 전 실시하는 예비교육 협조 요청에 따라 군목후보생 31명에 대한 군목후보생 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될 본 수련회는 군목으로 입대하는 자들에게 군선교의 중요성 및 사명감 고취, 군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리는 수련회로 매년 우리 교회가 협조하여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도 소요비용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이날 개회예배에 설교를 담당하게 된다.



금요집회, 조창호 씨 간증

오는 3월 31일(금) 금요집회에는 6.25때 육군 소위로 전투하다 전쟁포로로 잡혀 지내다 45년만에 북한을 탈출해 온 조창호 씨가 와서 간증을 하게 된다.

조창호씨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그동안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제 그 신앙적 편력 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차량관리부 인원보충

매주일 차량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차량관리부에서는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사람 중 후임으로 황현철, 이태식, 이영일, 추병창, 김영길, 이교영, 권용동, 이재철, 김동삼, 장동규 집사 등 새로 10명을 보충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보며 신앙적 유익과 성도의 교제의 장으로 이용되는 <주간충현>과 <계간충현>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는 어떤 형식의 글도 되며, 모두가 함께 보고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글로 삶의 영역에서 보고 느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면 됩니다.

글의 분량은 원고지 4매~10매정도(PC 사용시 A4 1매~1매 반)이면 됩니다.

제출장소는 선교관 303호 <주간충현>편집실 (전화 552-8200, 교환 348, 349)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8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3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8교구가 시작한다. 7교구는 3월 27일 오전 9시까지이다.

2. 군목후보생 수련회
3월 28일(화)
오전 10시~오후 7시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군목후보생 수련회가 3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군 입대를 앞두고 군목의 중요성 및 군복음화 전략 등을 다루게 된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한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자

정확하고 바른 태신자카드 작성이 급선무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일정이 확정됐다. 6월 6일부터 11일까지를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으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전도는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 교구와 개인들은 태신자 작성에 신경을 쓸 때이다. 태신자를 정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忠顯館

● 요한계시록 강해 29 ●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계 13:1-10)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을 알아야 합니다.

1.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꿈이 아니고 어떤 계시성을 가진 아주 이상하고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결할 수 없어 변민하고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짐승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둘째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바벨론 뒤에 일어난 연합국 메대파사(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들은 주전 583년에 바벨론을 점령하여 주전 380년까지 번갈아가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셋째로 배와 넓적다리라는 뜻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헬라나라를 가리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80년에 메대와 파사를, 즉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그의 휘하에 있는 네 장군에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0년에 와서 로마가 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섯째로 철로 된 두 다리 밑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열 발가락이 있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나누어진 것처럼 나뉘었다가 또 섞인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열 발가락은 열 개의 왕국이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유럽공동체(EC)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처음에는 열 개 나라의 연합이었지만 지금의 유럽공동체(EU)는 열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발가락을 꼭 오늘날의 유럽이라 그렇게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인 돌입니다.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풍지박산, 타작마당의 겨같이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부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뜨인 돌은 두 말할 필요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적그리스도 국가를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때려 부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정체

(1) 짐승의 모습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거기에 열 개의 면류관이 있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자의 면류관(스테파노스)이 아니라 왕이 쓰는 면류관(디아데마)입니다. 세기 말에는 적그리스도 국가, 마치 열 개의 면류관을 쓴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통치력을 가진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원래 힘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머리가 일곱 개라고 했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머리라는 것은 지혜, 즉 통치력, 사고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짐승의 권세가 용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완전수인 일곱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날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용으로부터 모든 지혜를 받고, 통치하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 짐승의 성격과 용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표범은 동물 중에서 아주 민첩하고 신속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둘째로 그 발은 곰의 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곰의 발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대파사처럼 대 군대를 거느리는 것, 강한 힘과 권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셋째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 바벨론처럼 천하를 삼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의 입, 사자의 이빨에 한번 물리면 살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복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렇게 민첩성을 가지고 있고 강하고 정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번 장로님들하고 소아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에베소교회에 있었던 곳에서 도미시안 황제의 흉상들을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는 ‘도미시안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부터 황제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를 하나님이라, 주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참람된 사람입니다. 그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참람된 자들이 이 지상에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세기말에 있게 될 짐승에게 속거나 유혹을 받거나 또 혹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들을 분별하여 경계하며, 모든 일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는 바로 그것이 참람된 이름입니다.

(3) 상하여 죽게된 머리의 회생
3절과 4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주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기사회생을 해서 다시 일어나게되자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고 그 용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용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의 휘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흔히 신화속에 나오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 사람들은 용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중국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왕이 앉는 의자도 그렇고 가장 귀한 곳에 용을 그려 넣고 이름에도 용(龍)자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런 것을 문화다 하고 끝내면 그만입니다만 그러나 그 문화를 쫓게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되고 그러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4) 짐승의 회방

5절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흔 두 달은 삼년 반을 말하는데 삼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언론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집권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으며 누가 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16장 4절에 나오는 “모압은 멸절(滅絶)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는 말씀을 보고 모압 땅이 도피성이 된다고 해서 요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디에 가서 피하면 안전합니까? 살아남을 곳이 딱 한군데 뿐입니다. 거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품안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뿐입니다. 주님의

품안을 제외하고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를 가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삼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들이 집니다. 명목상의 성도. 이름만의 성도 이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는 사람이 정말 모두 다 신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죽정이가 없어야 합니다. 알곡만 있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명목상의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4절의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라는 말씀대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서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된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세기말에 있게 될 짐승에게 속거나 유혹을 받거나 또 혹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들을 분별하여 경계하며, 모든 일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살며 생각하며 ◆

찬송은 즐거워

최현자

(집사, 탁아부 교사)

4는 찬송을, 그리고 찬양하기를 좋아한다. 전에는 명곡이나 가곡을 좋아해서 집에 있는 시간에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놀 노래를 흥얼거리니 옆집에 살던 새댁도 내가 즐기던 노래에 전염(?)이 되었는지 따라 불렀다. 그러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멋적은지, "아줌마가 노래를 자주 부르니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돼요" 하며 씩 웃는다. 그럴 때면 나도 "새댁은 얼마나 행운인지 알아? 내가 늘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면서 괴롭게 하면 어쩔뻔 했어? 이웃 잘못 만나 속썩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늘 즐거운 노래 속에 살고 있으니 학원로 안 받올테니 계속해서 달라 불러" 하면서 웃곤 한다.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나는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 중 많은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찬양을 부르다보면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 평화스러운 마음은 무어라 표현하기 어렵다. 이럴 때 거울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 늘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인가 11월 어느날이었다. 그 날도 찬송을 부르는 중에 우연히 내가 속해 있는 장년1부의 주제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1절은 외워 부를 수가 있었지만 2, 3절은 외우지 못했다. 찬송가를 찾아 부르면서 주제찬송 정도는 외워서 불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들어가든지 입사하면 교가가 있고 사가가 있어서 배워 외워 부를 수가 있는데, 주일마다 주제찬송을 부르면 11월이나 40번 이상은 불렀을 것인데 아직도 보고 부르려니 내 자신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주제찬송을 찾아 몇 번 계속해서 불렀다. 주일마다 불렀던 곡이라 그런지 쉽게 외울 수가 있었다. 얼마나 기쁜지, 그 전해의 주제찬송 또 그 전해의 주제찬송 그래서

그날 서너곡을 외울 수가 있었다.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기에 그래도 쉽게 외울 수가 있었다. 너무나 너무나 재미있어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찬송을 부르다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전날 외웠던 찬송을 부르려니 생각이 잘 안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반복하며 노력해서 완전히 외워부르니 찬송가를 보고 부를 때와는 또 다르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는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부르면서 더 많은 찬송을 외워서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찬송가 전장을 살펴보니 한 300곡 정도는 아는 것 같았다. 이 때는 찬송을 외워 부르는 재미에 완전히 빠지다시피 한 때라 열심히 노력하면 한 주일에 3-4곡을 외우고 1년이면 150곡 이상 외울 수 있을 것 같고 외웠던 것 중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100곡 정도는 외워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만은 꼭 실천하리라 생각하면서 달력 뒷장에서 52개 줄을 긋고 안방에 걸어 놓아 한주일에 계획한 것 실천할 때마다 체크하기로 했다.

지난 날의 그 술한 좋은 결심과 다짐을 거의 실천하지 못한 나였기에 어린이와 같은 유치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안방에 걸어 놓으면 가족들이 오가면서 바라볼텐데 어떻게 실천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모든 결심들을 작심삼일로 끝내었던 내가 1년을 실천해보기는 내 생애에 처음 있는 일로, 나에게도 이런 정열이 있었는지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이때는 찬송 외워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루해가 짧은 것같이 느껴졌고 밖에 나갔다가도 빨리 마치고 귀가했고, 집에서는 거의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다시피하니 나같은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100곡 정도는 외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가끔 절수가 뒤바뀔 때도 있기는 하지만.

찬송을 부르다보면 평소에도 은혜로운 곡이지만 이렇게 좋은 가사였고 곡이

있던가를 새삼 깨달을 때가 많았다. 처음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는 찬송 300여곡을 외우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이것은 나에게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새 곡을 외우다보면 외웠던 곡들을 잊어버리니 외웠던 곡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고 불러본다. 나는 버스 안에서 서든지 길에서든지 발길 닿는 곳 어디서든지 마음속으로 찬송을 부르며 다닌다. 그래서 내 무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부르는 대형가수들의 무대보다 훨씬 크다(?). 관객은 없지만.

나는 누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다가는 시도 때도 없이 울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지,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쩔뻔했나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며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과 가족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언젠가 집에서 찬양을 하다가 1시간 정도 온 일이 있다. 눈물을 닦으면 또 나오고 뜨거운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도 지나온 일들이 죄뿐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저의 부족을 무어라 표현해야 하나요' 하면서 울고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난다. 먼저 천국 가신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부르게 될 때는 저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4부로 오르간을 치시며 찬양하시던 어머니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던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어머니이란 단어는 50이 넘은 내 나이이지만 감미롭고 사랑스럽고 안기고 싶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들을 함축한 말이 아닐까?

30년 전 보리고개가 있던 그 시절 모두가 힘들게 살던 그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며칠 앞두고 맹장염에 걸렸던 동생을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여 치유받게 하셨던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정열을 바쳐 기도하던 모습에서 용기를 얻는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어머니. 나는 우리 딸과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은 어째서 나에게 아무 재능도 안 주셨을까 하는 원망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왜 아무 재능도 안 주었느냐 하신 주님을 보는 것 같았다. 가만히 생각하니 조금의 재능은 주신 것 같다. 나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주님은 괴롭고 답답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내 손목에 매여있는 줄을 흔들어 정신차리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일깨우신다. 적당히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보내시지는 않았을텐데. 어찌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나는 살갈이 빠른 세월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

◀ 칼럼 / 역삼동에서 ▶

21세기와 변화

이형수

(집사, <주간중헌> 편집장)

우리는 언젠가부터 '21세기'란 말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특히 금년 새해에는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있다.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온 매스컴이 야단들이다. 국가나 각 기업, 사회단체, 심지어 교회에서도 21세기를 논하고 있다.

21세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서기력으로 2000년대를 말하는 21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5년이면 21세기라고 부르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금년 새해의 신문에는 늘 그래왔지만 이번은 색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신문마다 신년특집판으로 다른 내용은 21세기 정보통신에 관한 것들이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흔히 공상과학영화나 만화영화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는 것들이었다.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저 기막혀 하고만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또 그런 변화에 따라 우리 인간들의 생활양식과 사고구조가 변화할 것이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변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매달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월간지의 광고란을 살펴보면 그런 변화를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다. 새로운 목회적 상황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강연회,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 등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그대로 전해 오는 느낌이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사회는 모두 컴퓨터화되고 정보·통신의 혁명이 일어나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교회도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 것은 논란할 것이 못된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외적 변화에 따른 내적 변화·생활양식, 사고구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이 추구하는 편리함, 안락함, 빠른 속도와 자기 중심적인 자유함 그리고 합리적이고 힘있고 실력있는 자만이 살아 남는 무한경쟁의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은 편리함이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께 예배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자기 중심적인 자유함보다는 타인의 양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조심스러움이, 경쟁보다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고 의미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에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도록 하는 변화가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스도 없는 과학문명과 바알문화가 판치는 이 21세기의 문턱에.



토·막·소·식

- ◆ 유아부는 오늘 반별 주기도문 외우기 행사를 연다.
 - ◆ 탁아부에서는 늘어나는 탁아들의 숫자에 따라 탁아부에서 봉사할 임시교사를 모집한다. 50세 이하의 아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빠를 찾는 아기들을 위해 남교사와 4부 예배시에 봉사할 교사들이 꼭 필요하다.
 - ◆ 초등1부는 4월 23일 성경암송대회로 모인다. 암송범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 ◆ 초등2부는 4월 16일에 부활절 성경암송대회로 모인다(고전 15:1-20). 또한 주일 오전 11:00~11:30, 교육관 301호에서 오후 예배로 모인다.
 - ◆ 중등1부는 영어공부도 하고 영어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교육관 303호(성가대 연습실)에서 2시 30분부터 영어성경공부반으로 모인다.
 - ◆ 중등2부는 4월 16일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연다. 과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준비하며 찬송가 149~160장 중에서 한 곡을 골라서 부른다.
 - ◆ 고등부는 오늘 김창인 원로목사의 특강을 듣는다. 제목은 '성공하려면' (전 3:11-15).
 - ◆ 대학부는 성령비전 2000 제1차 깃발대회의 일환으로 25일(토)에 건국대·숭실대·연세대·한양대로 집중전도를 나갔다. 각 대학별 익투스파 팀이 모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알찬 열매를 거두었다. 또한 하사리팀(우편물 발송)에서 일꾼을 요청하고 있다.
 - ◆ 청년1부는 3월 28일 저녁 7:30~9:00 명동제일백화점 근처 대한투자신탁 앞에서 총동원전도로 모인다. 전 회원이 참여하여 전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명동에서 찬양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매일 새째주 토요일에 천사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관심있는 청년은 11

- 시 테이프 보급소 앞에서 모이면 된다.
 - 또한 매주 수요일부 예배 후 교육관 2층 새가정부실에서 수요일기도회로 모인다. 청년1부와 교회, 각 회원들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제한다.
 - ◆ 청년2부는 오늘 각 반별친교회로 모인다. 각 반별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 ◆ 장년1부는 오늘 찬송가부르기 대회로 모인다. 부를 곡은 자유곡 1곡. 5월에는 성경암송대회로 모인다. 범위는 마태복음 5장 전장이다. 미리미리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 ◆ 장년2부는 4월 23일(주일) 찬송가부르기 대회로 모인다. 곡목은 자유곡 1곡과 지정곡 43장.
 - ◆ 장년3부는 오늘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연다. 곡목은 507장.
 - ◆ 사랑부는 4월 9일에 주기도문 암송 대회로 모인다.
 - ◆ 가브리엘 찬양대는 부활절 성가합창제 준비를 하며 4월 3일 합창제리허설로 오후 3:10~3:30에 모인다. 또한 4월 16일에는 현상민 목사의 특강이 있다.
 - ◆ 임마누엘 찬양대는 4월 1일 소프라노 단합대회로 모이며 또한 테너·베이스팀도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를 갖는다.
 - ◆ 예배다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95년도 제1차 수화교실이 55명이 등록하여 지난 3월 12일(주일)에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 예배다부 수화교실은 88년 8월에 제1기 초급반을 개설한 이래 금번으로 초급 제16기, 중급 제15기, 고급 제14기를 맞고 있으며 졸업자들은 예배다부 교사, 사회선교단체 등에서 농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고 있다.



□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한 겨울성경학교

천 한 나

(초등5부 전리8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한 겨울성경학교가 3일 동안 열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타고 교회에 왔다. 첫째날과 둘째날, 셋째날 중에서 가장 인상깊고 기억에 남는 날은 둘째날이었다. 둘째날에는 영화감상을 하였다. 제목은 '함께 하는 이웃'이었다. 르완다, 소말리아 등 배고픔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만 크고, 손톱은 하얗고, 몸은 가죽밖에 없는 것 같았다. 르완다 어린이들은 나았다. 왜 죄없는 어린이들이까지 죽게 만들까? 르완다는 10살까지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어머니의 마른 젖을 빠는 아이를 보면서 내 우유를 주고, 내가 키우고 싶은 심정이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음이 다 아팠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르완다도 전쟁통에 어른들을 잃었다고 한다. 내가 크면 저런 아이들을 힘껏 도울 것이다. 또 지금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것이라고 느꼈다. 앞으로는 투정부리거나 밥을 안 먹는 행동은 절대 안해야겠다고 그날 몇번이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배고픔과 추위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이제부터 '사랑의 빵' 저금통에 정성이 담긴 돈을 한낱씩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겨울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이,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확실한 어린이가 되어 예수님 믿는 아이로 본을 보여야겠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한 둘째날이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3/26(주일) 고등부 설교
 - 신성종 목사: 3/27(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 3/28(화) 군목후보생 수련회 개회예배 설교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소서.

◆ 우리 부서는 지금 ... ◆

중단없는 함찬 전진, 성령비전 2000

전 일 송

(대학부 회원, 제5-2교구)

대학부 성령비전 2000의 3월 사역이 깃발대회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사들은 깃발대회의 시작을 선포하는 등반대회, 캠퍼스전도 및 캠퍼스 내 총현대학부 홍보를 위한 전단, 포스터 부착, 잃은 양 찾기, 3월 26일, 오늘의 전도집회를 위해 대신자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해 왔다.

무엇보다도 모든 대학부의 사역과 일꾼들을 위한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일 열린기도회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학부 성령비전 2000의 구체적 사역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제는 결실되어질 열매들을 기대하며 더욱 더 대학부사역에 우리의 기도와 땀과 눈물을 더해가는 대학부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결실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고 그 일의 과정속에 사람을 기쁘게 동참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대학부 공동체 안에 진실된 관계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강력 한 줄로 묶어내는 진정한 관계성의 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양육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관계성이 창출되고 가는 것이다.

총현 대학부는 그 구체적인 열정을 3월 사역에서는 깃발대회의 모습으로, 특별히 1000명을 초청하는 전도 집회와 대학부 회원 700명 확보에 쏟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초청된 이들에게 복음을 맛보아 알게 할 것이며 성령비전 2000의 동참을 촉구할 것이고 우리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나서서 전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굳게 서며 싸우

기를 독려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을 맛보며 총현대학부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가게 하시기에 모든 대학부 지체들은 21세기에도 이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이 구체적 행동양식으로 드러나도록 직장, 학원에서, 캠퍼스에서 함께 아침 일찍 기도하며 동일한 비전을 가진 형제들을 끌어안고 최선의 삶과 실력무장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와 함께 한 지체들 그리고 새롭게 대학부 공동체를 찾아온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십계와 양육과 교제와 격려의 귀한 대상으로 보내주시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결심한다. 성령께서 도우시므로 우리를 땅에서의 긴 인내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비전 2000의 힘찬 전진 속에서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지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의 연합함에 대한 자괴감과 많은 일을 핑계하여 영적충전이 이뤄지지 않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상실 등의 슬픈 소식을 결코 접할 수 없다. 승리가 선포된 싸움에 나서는 용사의 당당함으로, 어떠한 불의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영성으로 깃발을 높이 들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며, 더욱 더 우리 몸을 날카로운 의의 병기로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본질적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